



주 제:	“회개의 열매”	“사순 제 3 주일”	2010년 3월 7일
복음 묵상:	[루가 13,1-9]	[출애 3,1-8 ㄱ.13-15]	[1 고린 10,1-6.10-12]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낼 사명을 받은 불은, 태워 없애고 사그라지는 진노의 불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정화시키고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의 불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고 언제나 타오르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이티의 지진으로 인해 일어난 참상을 보도로 접한 사람들이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비극이 일어나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해주시고 감싸주시며 매일의 삶을 허락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잊은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천벌을 받았다’라는 말을 내세우며 예기치 못한 사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하느님의 징벌과 분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예기치 못한 사고와 죽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느님의 ‘징벌’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이며 “경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학살당한 갈릴래아 사람들과 실로암 탑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비유 들어 말씀하신 것은 경고를 보고도 회개하지는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심판은 나와 무관한 일이구나’ 하며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뿌려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제 2독서에서 보듯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잘려 버려지게 됩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도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 내게 허락된 새 아침은 나의 의로움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허락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가고 있는 삶에서 고개를 돌려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기다림을 알면서도 내가 걷는 길에서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 누구든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수원 이상협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조 문식 베네딕도 형제님이 회복중에 있습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도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빌어 주십시오. 그동안 제 실수로 조 베네딕도 형제님을 김 베네딕도 형제님으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 주 성숙 리따 자매님이 한국에 제신 부친이 위독하시다는 급보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길 기도중에 꼭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사항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및 미사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회아와 함께 하는 사순 음악피정
일시 ; 3월 10일 (수) 오후 7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회아 (세레명; 히야친타)” 양이 음악 피정이 있습니다.
- 부활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
성당에서 미사 전 (오후 7시) 및 후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1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3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4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5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6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7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8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9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1분 명상

“새벽 기도, ”

-정 채봉-



이제는 홀로 밥을 먹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홀로 울지 않게 하소서

길이 끝나는 곳에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조그만 술집 희미한 등불 곁에서
추위에 떨게 하소서

밝음의 어둠과 깨끗함의 더러움과
배부름의 배고픔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움의 추함과 희망의 절망과
기쁨의 슬픔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리어카를 끌고 스스로 밥이 되어
길을 기다리는 자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

“No one who sets a hand to the plow and looks to what was left behind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